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3.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이라 함은 1 km^2 당 100 인 이하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포함한 산간 혹은 평야 지역을 말한다.

4. 분산 배치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기존 위치에서 300km 이내의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을 택하여 이전한다.

5. 주요 작물 경작지는 해당 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실시 기간

① 각 교육기관은 긴급명령 발표 이후 3년 이내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이내에 분산 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1. 교육기관 이전 비용은 현존 교육기관 부지와 건물 매각 비용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2. 기숙사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3. 교육기관 이전 후보 지역의 토지 거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교육기관 이전 후보 지역의 사적 소유권은 해당 시점의 공시 지가로 보상한다.

제5조 교육기관 이전 지역별 인구 밀도



○

○

- [중요] <알림> 흐르는 강물처럼 페이지의 사진과 커버 사진을 변경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70 여 년 전, 시골이었는데 그 땐 호롱불을 켜고 생활했습니다. 40 여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집에서 선대부터 다녔던 절 청련사에서 49 재를 올렸는데 아래 사진은 아버님의 막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이 청련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달이 음력 9 월이라 만추의 계절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강물처럼 느껴지는 장면이라 페이지 사진으로 바꿔봅니다. 2021. 11. 29. 신 재욱

- ♡옛그제와 그제, 신심이 돈독한 처제들로부터 집중 애무(?)를 당했다. 형부를 지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어떤 죄도 다 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남은 인생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큰언니도 원합니다. <막내처제> 작은 언니가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는 그누구도 홀로이고 세상의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었기에 언니는 행복했습니다. <둘째 처제> 형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루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던가? 단언하



최신순
feed typelist type
가. 최근 등록된 게시물 목록



흐르는 강물처럼

12 시간 전

【2019년 7월 10일자로 올린 포스팅입니다.
다시읽기차원에서 소개합니다.】

<단상>

고독은 영웅도 올린다

시골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이란 한 마디로 수업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엔 알폰스 도데의 별이란 단원이 나오면

...더보기

•

•

8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105

최고예요

댓글쓰기

공유하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5일 오전 7:34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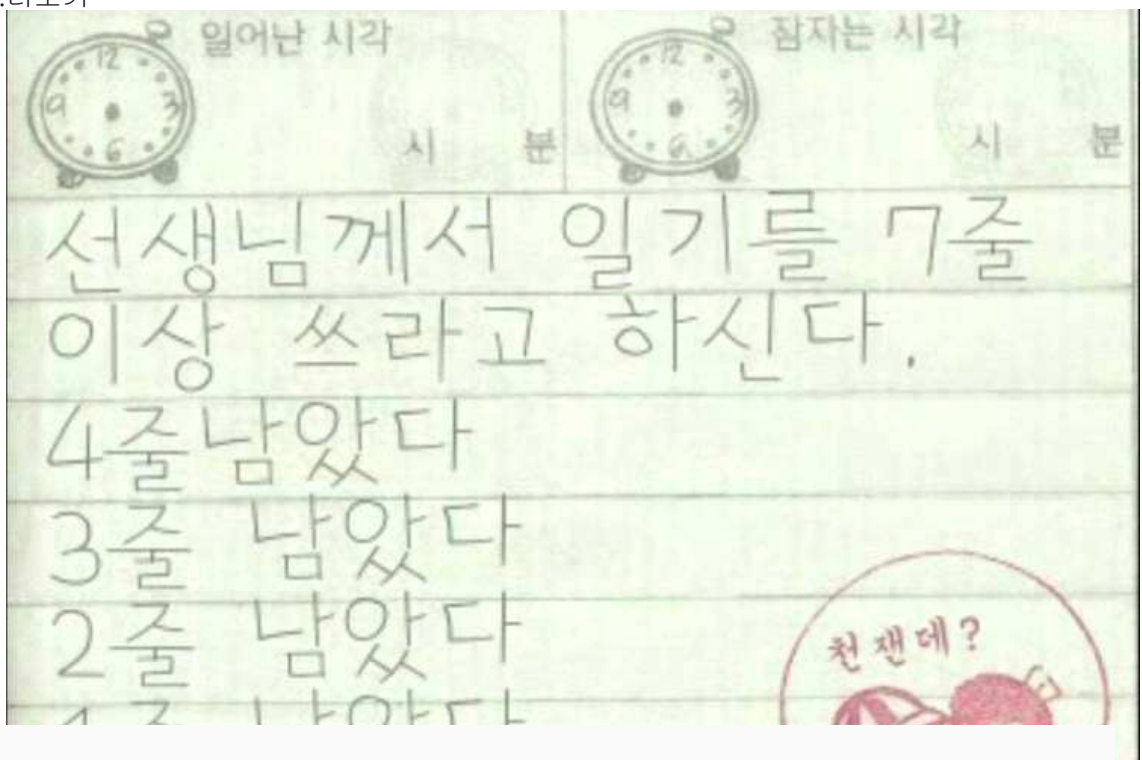
어느 아들의 시니컬한 일기

어디서 캡처한 일기인지 기억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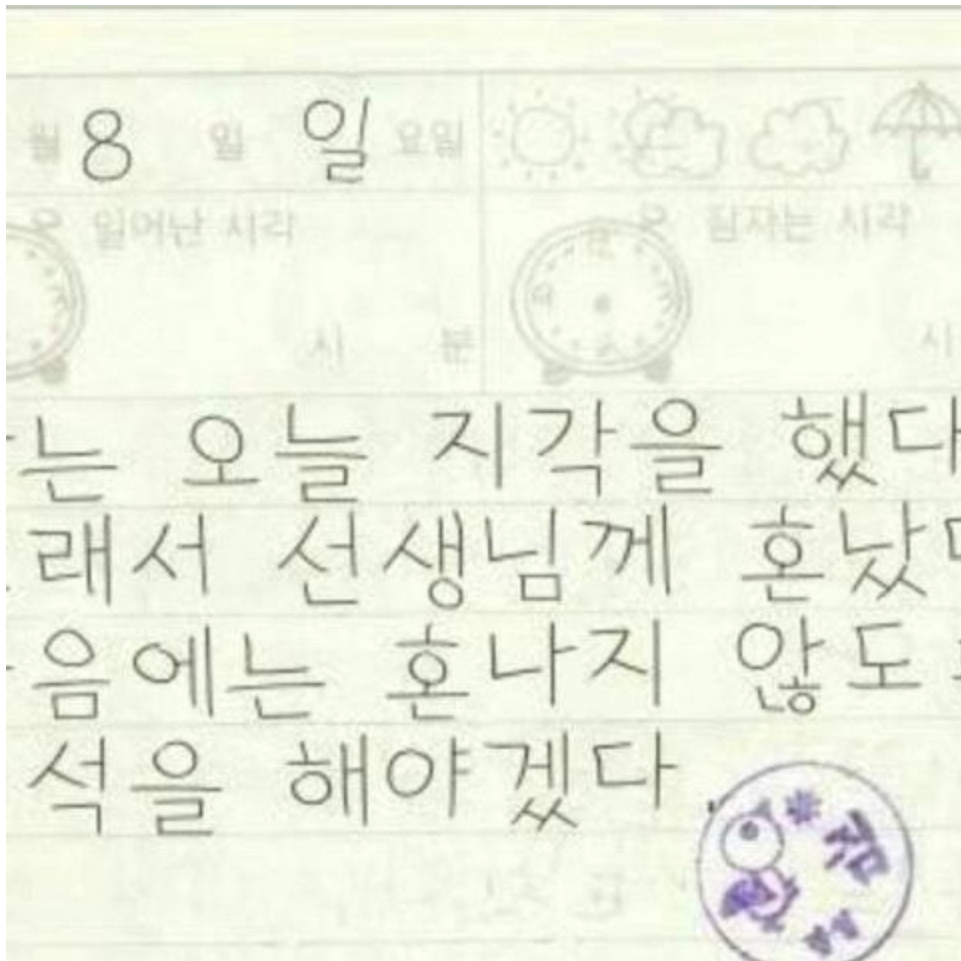
페이스북인지 아님 어느 밴드였는지 아무리 기억할래도 생각이 안 난다.



5월 26일자로 캡처하였는데 2013년도에 쓴 초등학교의 일기니까
이 일기를 쓴 학생은 지금쯤은 약관의 청년일 터이다.
...더보기



-
-
-
-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Norway

□□



남연
이환천 ?

ㅎㅎ

1)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4일 오전 10:10

【늦게 구독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2년 전에 올린 글 중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2019년 6월 7일자 게시글
-제사를 없애려면 당대에 없애야 한다-를 소개합니다.
조회수 5천여 회에 많은 댓글이 달려 제사 폐지와
관련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슈를 재점화해보는 차원에서 댓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

http://

이제 일기 쓰기

안습닷컴
anseup.com



일어난 시각

시

분



잠자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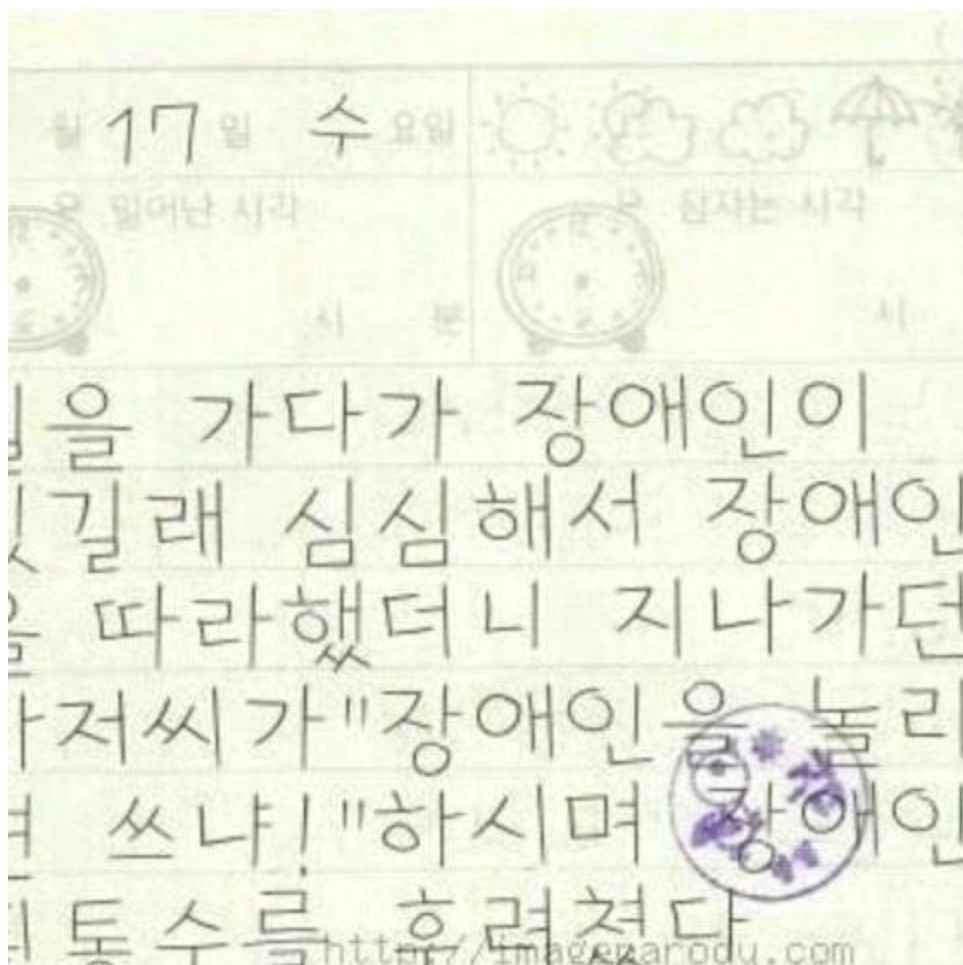
시

이제 일기 쓰기도 귀찮
다.

엄마 한테 시켜야지.



...더보기



물처럼

7일 오전 12:50 - 5405 일



-
-
-

2 댓글 2 댓글접기/펼치기

음 178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玄岩 손진수

*...더보기



박영순

조선시대 이후에 자리잡은 유교 문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든 신에 대한 미사든 의미를 부여하고 죽은 이와...더보기
2)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3일 오전 7:08

<단상>

다시 쓰는 단군 할아버지 전 상서

1994년 8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8년 전에 나는

<단군왕검님께 드리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쓴 일이 있고

작년 이맘때 제 밴드 페이지에 재인용, 다시 한번 강조한 적도 있다.

물론 우체부가 배달하는 답장이나

...더보기

-
-
-
-

7 댓글 2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153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고도를 기다리며



글도 소리도 모르는지 선동당한줄도 모르는듯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박숙희
기본적인 생존권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없는거 같아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3)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공지 2022년 6월 1일 오전 5:38
♡옛그제와 그제,
신심이 돈독한 처제들로부터 집중 애무(?)를 당했다.
형부를 지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어떤 죄도 다 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더보기

•



•



-
-

15 댓글 12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374
[최고예요](#)
 댓글쓰기
 공유하기



이부지랑 70

새롭게 발견된 이문구작가님 단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박영순

어젯 밤에는 저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누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셨습니다....더보기

4)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공지 2022년 5월 31일 오전 7:31

【늦게 구독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예전에 올린 글 중에서 선별하여
공지로 번갈아 올려보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결핍—집

어릴 때의 나의 소원은 우리 가족 소유의 완전한 집이었다.
초가집이라도 좋으니 마당이 있고 화초를 심을 수 있는 화단에다
담장에 장미 넝쿨이 걸려있었으면 하는 환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보기

-
-
-
-

23 댓글 8 공유 1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339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욕지니



해돌이



오드리



이영훈(태성)



홍서영



이예린맘



남상석



(스티커)



2019년 6월 13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강미애 나무소리

카톨릭 여고에서 일학년 담임생 개신교시라 일요일 자율학습 왔다가 광안리 교회 예배 열심히 갔었지요 ㅎㅎ 덤으로 바다보며 놀러구. ㅋㅋ

2019년 6월 14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Toto's (^^)

오늘 아침..웃음 한바가지 내뿜습니다~^^

2019년 6월 14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성민

공부방 교사인데.. 학생들이 들어 올 팔라에 배꼽 쥐고 웃고있는 저를 보고 선생님 왜 웃으시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저는 으나세..ㅋㅋㅋ 뭐났어? ㅋㅋㅋ 아이들이 가웃 가웃... ㅎㅎㅎㅎ

오늘 한 바탕 웃음으로 공부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길목마다 지키심은 큰 은혜이고 사랑인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길 기도해봅니다.~^^

2019년 6월 14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성민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게 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6월 14일 오후 3:01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김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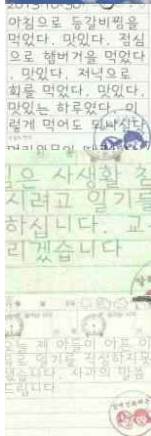


Norway

나이를 먹어가면서
의식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공간이나...더보기
5)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나. 최근 사진





다. 연결된 밴드



• 함께 쓰는 생활일기
바로가기
흐르는 강물처럼 페이지를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공유하기
layer focus check first element
2. 게시물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5일 오전 7:34220 읽음

<단상>

어느 아동의 시니컬한 일기

어디서 캡처한 일기인지 기억엔 없다.

페이스북인지 아님 어느 밴드였는지 아무리 기억할래도 생각이 안 난다.

5월 26일자로 캡처하였는데 2013 년도에 쓴 초등학생의 일기니까

이 일기를 쓴 학생은 지금쯤은 약관의 청년일 터이다.

http://

4월 4일 요일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시 분

선생님께서 일기를 7줄 이상 쓰라고 하신다.

4줄 남았다

3줄 남았다

2줄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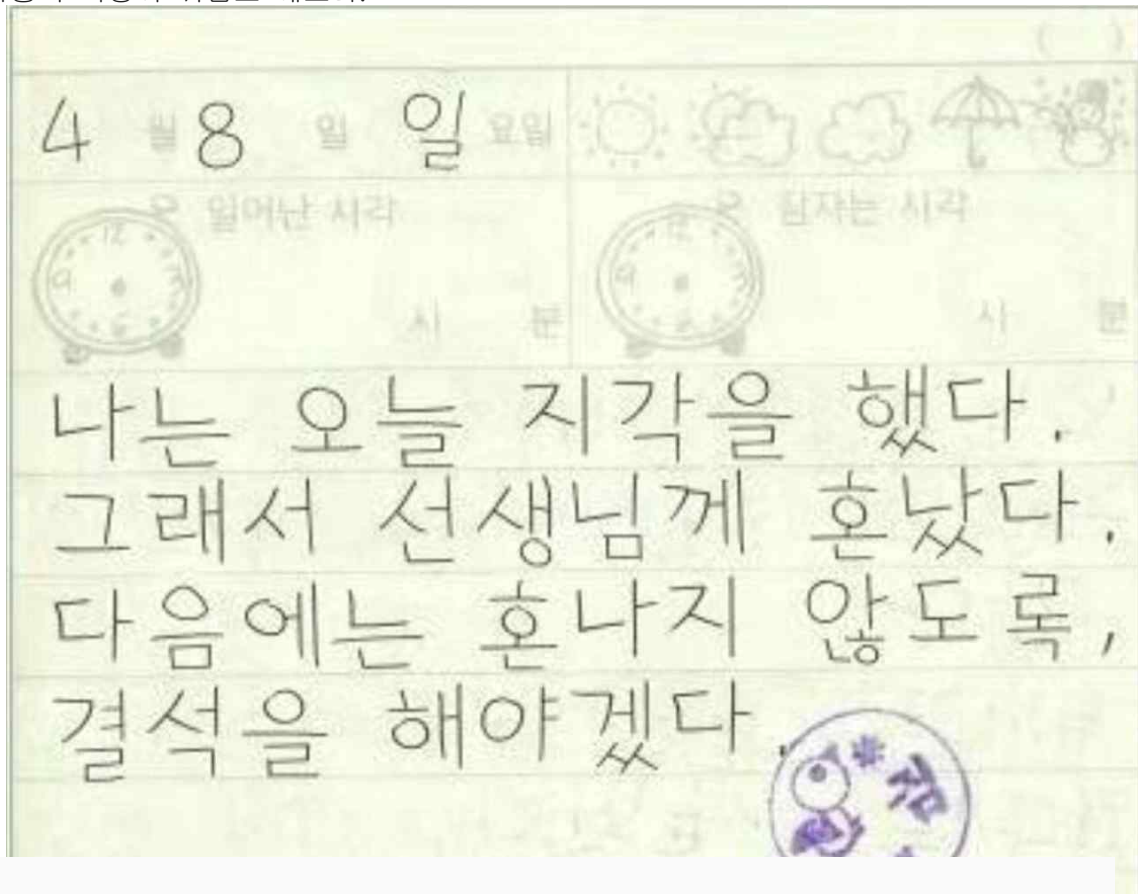
1줄 남았다

끝이다. 도장 찍어주세요

천재데?

안습닷컴 anse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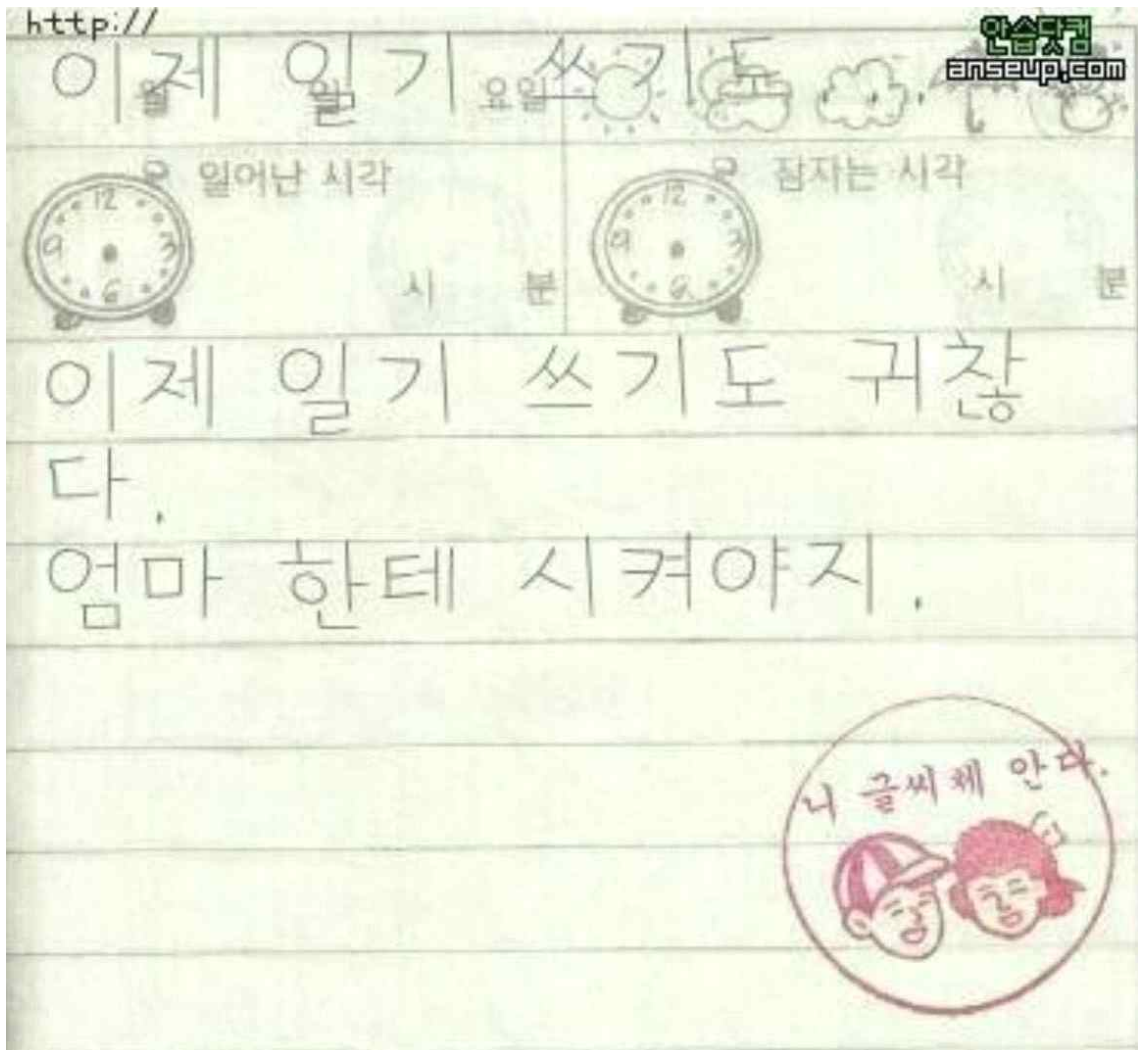
일기 쓰기 교육방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다.
 검열하는 선생님도 '천재데?'라며 감탄하신다.
 교육의 질은 시간이나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이다.
 7 줄 이상 쓰라고 한 선생님의 방침을 이 아동은 1,2,3,4.....
 노골적인 기수(基數)로 표기하여 반발하였다.
 아동의 착상이 귀엽고 예쁘다.ㅎ



놀라운 반전의 경지를 보여준다.
 아동의 글씨체를 훑내낸, 기성 풍자 작가의 조작된 글이 아닐까?
 살짝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이환천 시인의 실루엣이 얼른거린다.

엄마한테 시켜야지.
 대단히 불경스런 표현이다.
 요즘 아이들의 부모를 대하는 의식의 편린이다 싶으니 조금 걱정스럽다.
 '니 글씨체 안다' 라는 귀절까지 갇출만큼 다양한 검인 도장을 갖춘 교사....
 친필로 지적하는 '교육적 열의'를 구비하면 어디가 덧나는가?
 억지로 일기를 쓰는 아동에게 건성으로 도장을 찍어 응대하는 교사...
 살벌하고도 삭막한 교육현장이다.

모파상의 단편 '목걸이'를 능가하는 반전이다.
 아무래도 일기를 쓴 아동이 의심스럽다.
 글씨도 반듯하고 문장력도 깔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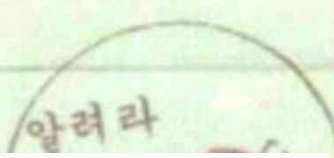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맞춤법이 정확하다.
 아동의 일기체에 방의한 기성작가가 아닐까?
 진짜 어린아이였다면 문단이 주목해야만 할 천재다.

•

배포가 두둑하다.
 아동과 교사 사이에 존재하는 도장의 의미.
 경위야 어찌되었든 도장만 받으면 된다는 가치관이 낭자하게 전개된다.
 마치 지식이나 교양과는 상관없이 졸업장만 취득하면 된다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

권모술수.
 비록 아동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사과의 말씀'과 같은 어른 말투를 인용한 부분이 재미있다.
 도대체 이 선생님은 모든 의사 표시를 도장으로만 하는 것일까?
 다양한 대화를 각인해 두고 있다.
 해당되는 검인 도장을 찾는 작업이 더 힘들지 않을까?
 비록 악필일지라도 직접 제자의 일기장에
 어째서 필적을 남기지 않는지 정신감정을 해보고 싶을 지경이다.

1월 17일 수요일	☀️ ☁️ ☁️ ☔️ ❄️
 일어나는 시각 시 분	 잠자는 시각 시 분
길을 가다가 장애인이 있길래 심심해서 장애인 을 따라했더니 지나가던 아저씨가 "장애인을 놀리 면 쓰냐!" 하시며 장애인 뒤통수를 후렷쳤다.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 를 하시려고 일기를 쓰 라고 하십니다. 교육청 에 알리겠습니다.	
	

일기를 억지로 쓰게하는 막장드라마의 결말이다.
 학생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태세이고 교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흔적은 진작에 사라지고

http://

날짜 몰라

요일

인습닷컴
ins2up.com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시 분

시 분

도장이 나찍어 주슈

오늘남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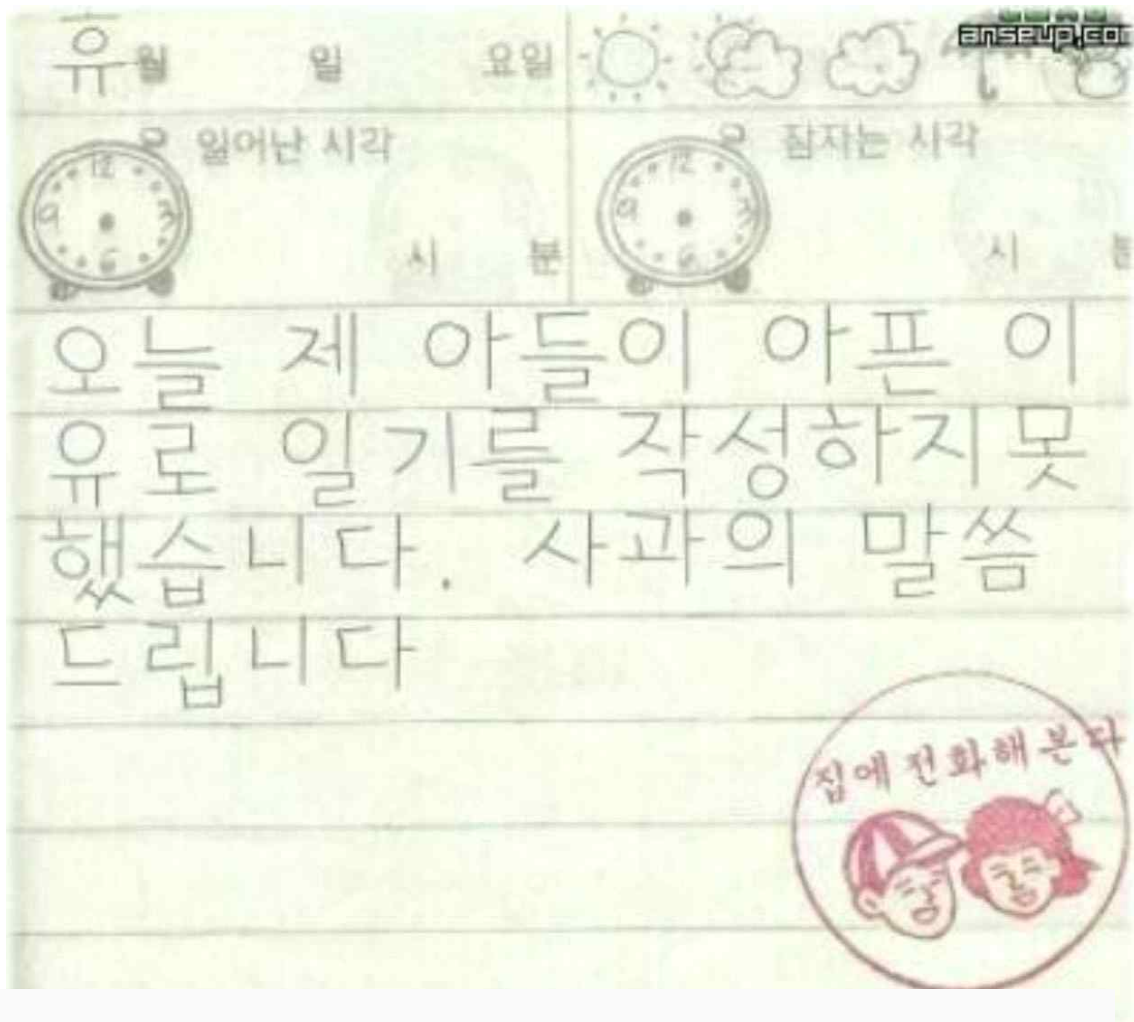
교실은 살벌한 결투의 현장으로 변하는 중이다.
물론 일기를 쓴 학생도, 검은 도장을 찍은 교사도
실재하는 인물인지 살짝 의심스럽긴 하지만
오늘날의 공교육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씁쓰레한 장면이다.

•

분량은 목표치 7 줄을 넘겨 8 줄에 이르고 있지만
일기치고는 최악의 일기다.
그러나 판정은 '제법이에요'이다.
교육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만해 볼 대목이다.
전시행정과 더불어 보여주기식 교육....
나라의 장래가 걸린 어린 새싹들을 어떻게 숨죽이고 있는지
몇 컷의 일기가 대변하고 있다. ☒

•

○



-
-
-

- [중요] <알림> 흐르는 강물처럼 페이지의 사진과 커버 사진을 변경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70여 년 전, 시골이었는데 그 땐 호롱불을 켜고 생활했습니다. 40여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집에서 선대부터 다녔던 절 청련사에서 49재를 올렸는데 아래 사진은 아버님의 막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이 청련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달이 음력 9월이라 만추의 계절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강물처럼 느껴지는 장면이라 페이지 사진으로 바꿔봅니다. 2021. 11. 29. 신 재욱

- ♥웃그제와 그제, 신심이 돈독한 처제들로부터 집중 애무(?)를 당했다. 형부를 지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어떤 죄도 다 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남은 인생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큰언니도 원합니다. <막내처제> 작은 언니가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는 그누구도 홀로이고 세상의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의 일기

2013년 10월 30일



아침으로 등갈비찜을
먹었다. 맛있다. 점심
으로 햄버거를 먹었다
. 맛있다. 저녁으로
회를 먹었다. 맛있다.
맛있는 하루였다. 이
렇게 먹어도 되나싶다

오늘의 반성

머리와몸이 따로 놀다



초딩일기장 (KidsDiary) for iPhone & iPod Touch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었기에 언니는 행복했습니다. <둘째 처벌> 형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루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던가? 단언하

최신순
feed typelist type
가. 최근 등록된 게시물 목록



흐르는 강물처럼

12 시간 전

【2019 년 7 월 10 일 자로 올린 포스팅입니다.
다시읽기차원에서 소개합니다.】

<단상>

고독은 영웅도 울린다

시골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이란 한 마디로 수업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엔 알폰스 도데의 별이란 단원이 나오면

...더보기



8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105

최고예요
댓글쓰기
공유하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5일 오전 7:34

<단상>

어느 아동의 시니컬한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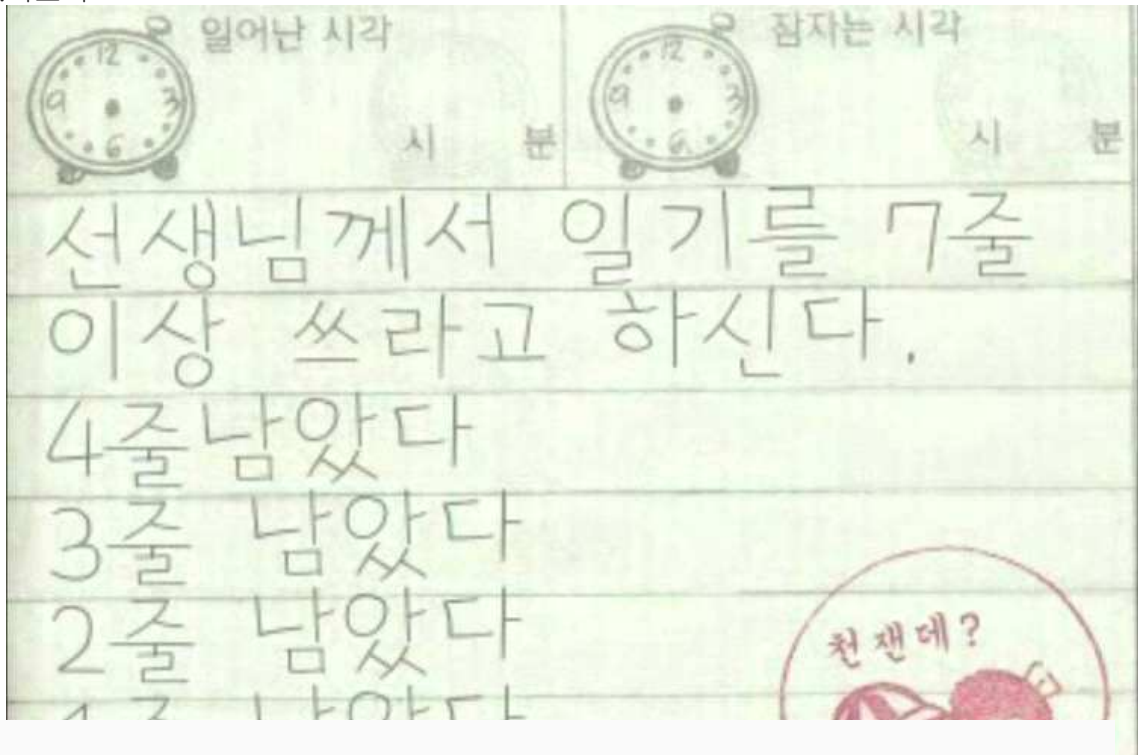
어디서 캡처한 일기인지 기억엔 없다.

페이스북인지 아님 어느 밴드였는지 아무리 기억할래도 생각이 안 난다.

5월 26일자로 캡처하였는데 2013 년도에 쓴 초등학교생의 일기니까

이 일기를 쓴 학생은 지금쯤은 약관의 청년일 터이다.

...더보기



-
-
-
-

12 댓글 4 공유 2 댓글접기/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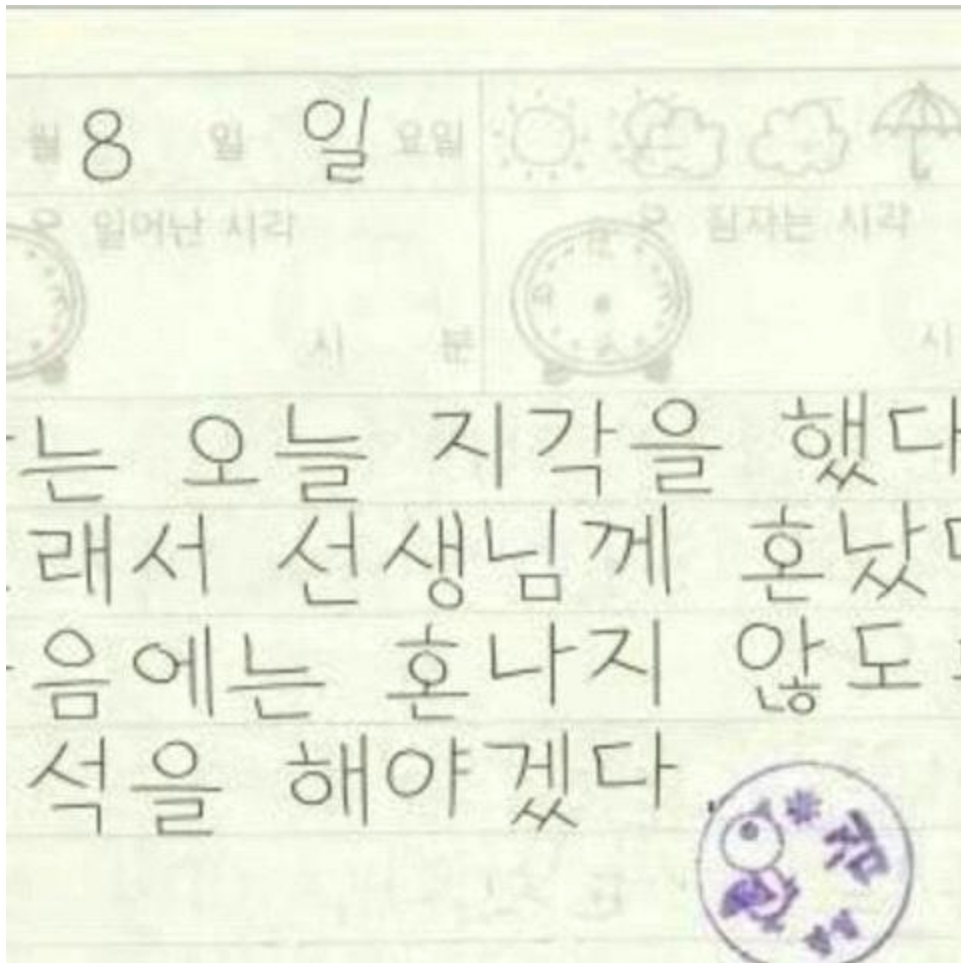
음 218
표정짓기
댓글쓰기
공유하기



Norway

□□

남연



이환전 ?

ㅎㅎ

1)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4일 오전 10:10

【늦게 구독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2년 전에 올린 글 중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2019년 6월 7일자 게시글

-제사를 없애려면 당대에 없애야 한다-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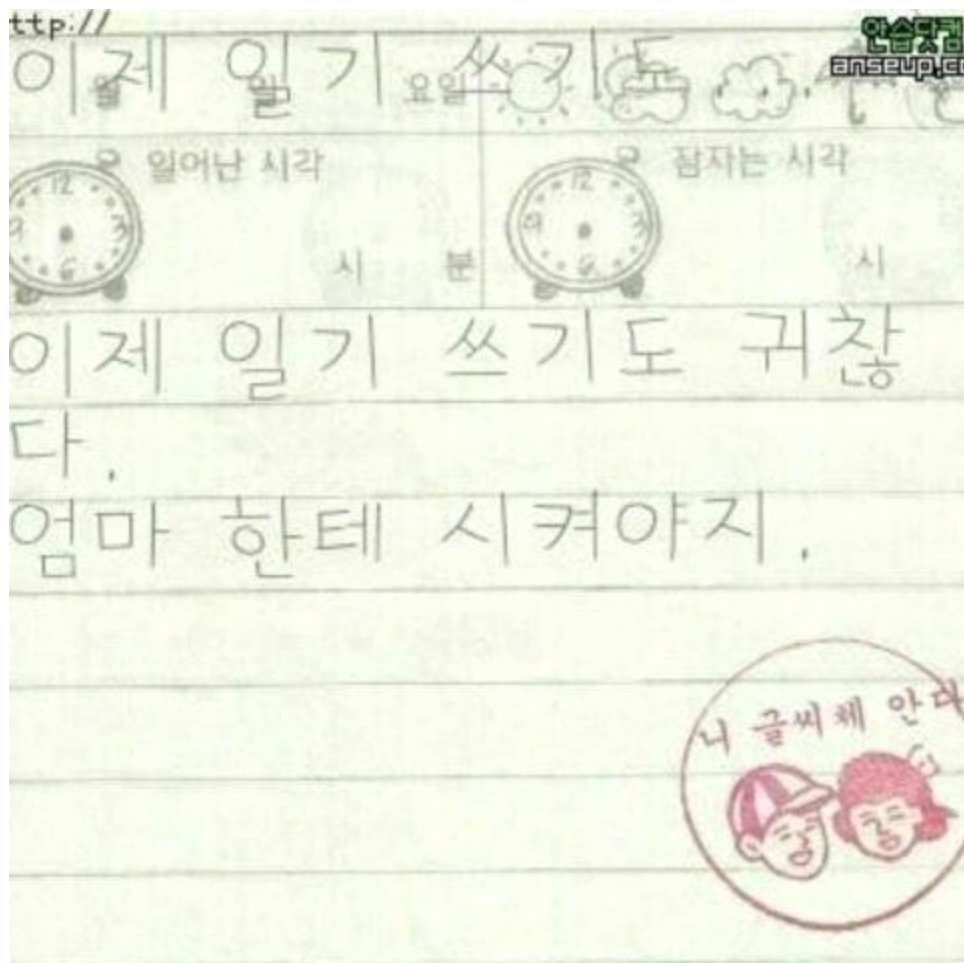
조회수 5천여 회에 많은 댓글이 달려 제사 폐지와

관련된 뜨거운 관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슈를 재점화해보는 차원에서 댓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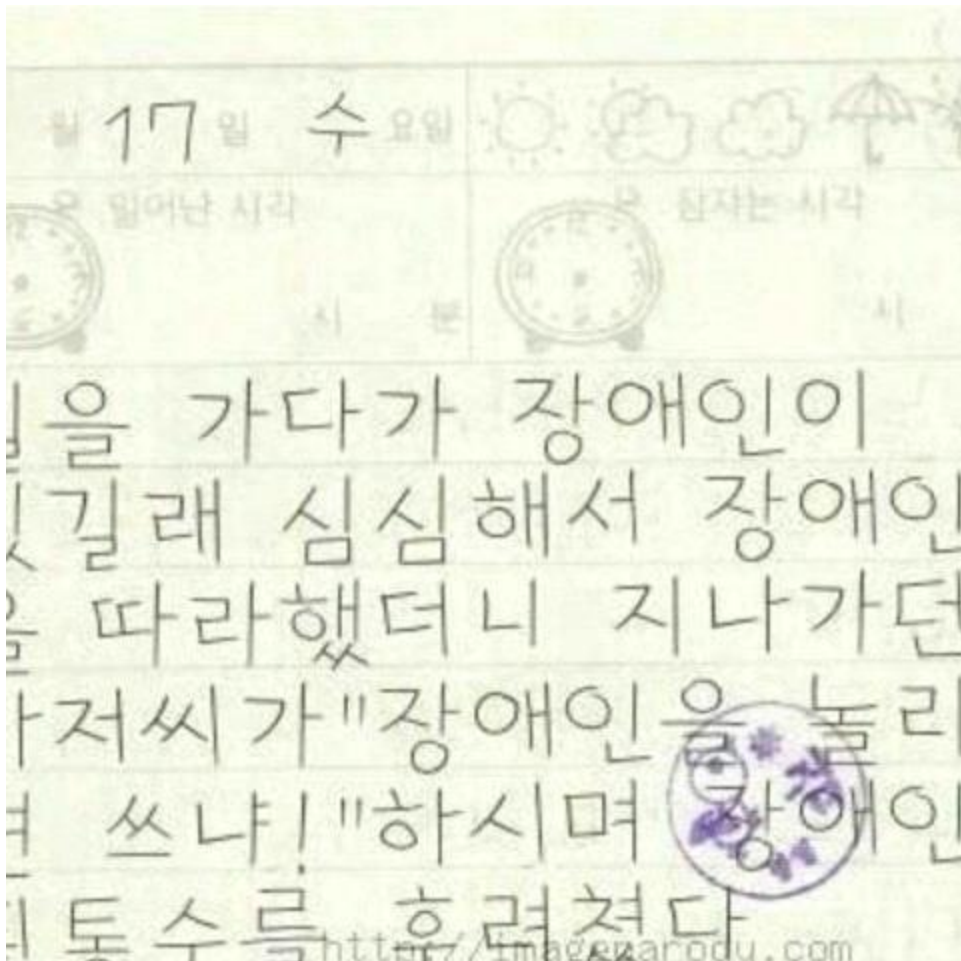
...더보기

-
-
-



물처럼

7일 오전 12:50 - 5405 일



2 댓글 2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178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玄岩 손진수

*...더보기



박영순

조선시대 이후에 자리잡은 유교 문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든 신에 대한 미사든 의미를 부여하고 죽은 이와...더보기
2)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3일 오전 7:08

<단상>

다시 쓰는 단군 할아버지 전 상서
1994년 8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8년 전에 나는



<단군왕검 님께 드리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쓴 일이 있고
작년 이맘때 제 밴드 페이지에 재인용, 다시 한번 강조한 적도 있다.
물론 우체부가 배달하는 답장이나
...더보기

-
-
-
-

7 댓글 2 댓글접기/펼치기

음 153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고도를 기다리며
글도 소리도 모르는지 선동당할줄도 모르는듯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없는거 같아 공포스러운 지경입니다.
3)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공지 2022년 6월 1일 오전 5:38

♡옛그제와 그제,
신심이 돈독한 처제들로부터 집중 애무(?)를 당했다.
형부를 지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어떤 죄도 다 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더보기

-
-
-





15 댓글 12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374

최고예요

댓글쓰기

공유하기



이부지랑 70

새롭게 발견된 이문구작가님 단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박영준

어젯 밤에는 저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누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셨습니다....더보기

4)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흐르는 강물처럼

공지 2022년 5월 31일 오전 7:31

【늦게 구독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예전에 올린 글 중에서 선별하여
공지로 번갈아 올려보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결핍—집

어릴 때의 나의 소원은 우리 가족 소유의 완전한 집이었다.



초가집이라도 좋으니 마당이 있고 화초를 심을 수 있는 화단에다
담장에 장미 넝쿨이 걸려있었으면 하는 환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보기

-
-
-
-

23 댓글 8 공유 1 댓글접기/펼치기

읽음 339
표정 짓기
댓글 쓰기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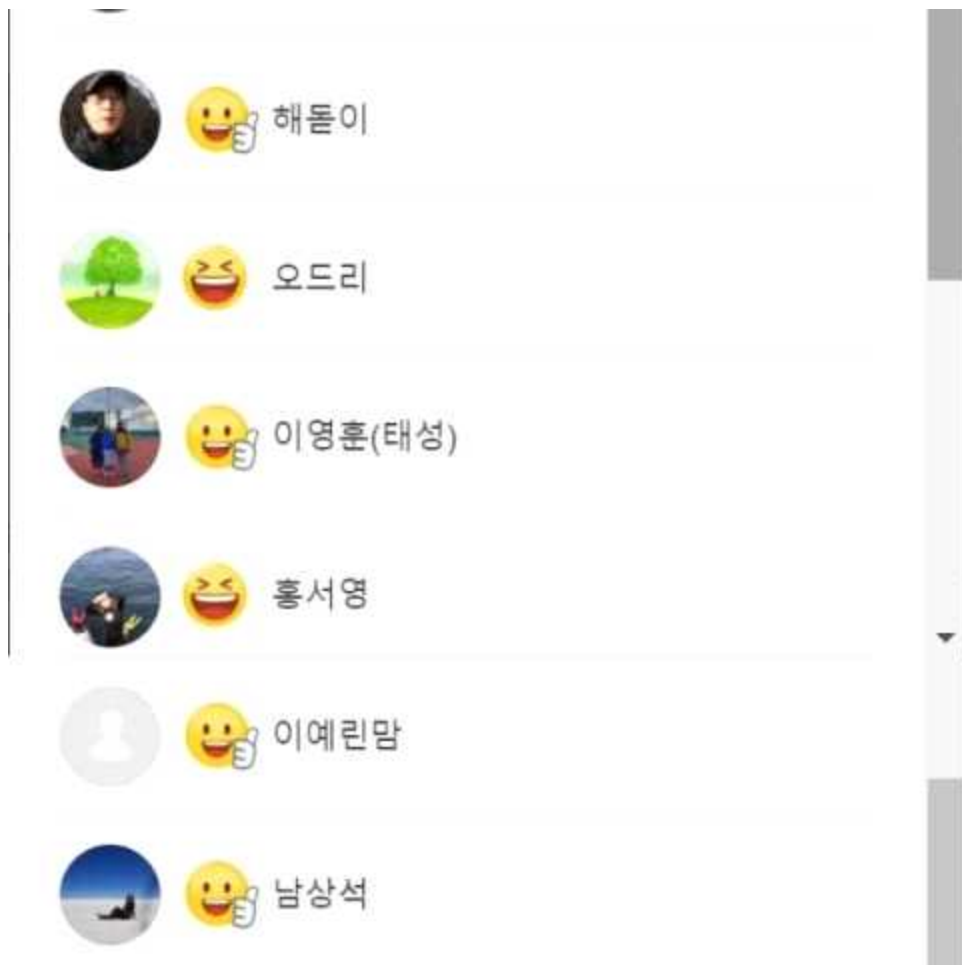
옥지니
(스티커)



Norway
나이를 먹어가면서



의식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공간이나...더보기



5)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티커
보내기
나. 최근 사진



2019년 6월 13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강미애 나무소리

카톨릭 여고에서 입학년 담임생 개신교시라 일요일 자율학습 왔다가 광안리 교회 예배 열심히 갔었지요 ㅎㅎ 염으로 바다보며 놀러구 ㅋㅋ

2019년 6월 14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Toto's (^_^)

오늘 아침..웃음 한바가지 내뿜습니다~!^^

2019년 6월 14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성민

공부방 교사인데.. 학생들이 들어 올 팔라에 배꼽 쥐고 웃고있는 저를 보고 선생님 왜 웃으시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저는 으나세..ㅋㅋㅋ 뭐났어? ㅋㅋㅋ 아이들이 가웃 가웃 ... ㅎㅎㅎㅎ

오늘 한 바탕 웃음으로 공부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길목마다 지키심은 큰 은혜이고 사랑인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길 기도해봅니다.~^^

2019년 6월 14일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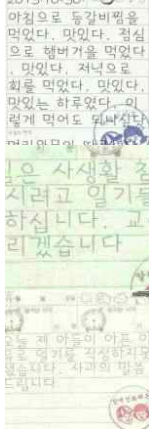


성민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게 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6월 14일 오후 3:01 - 😊 1 - 표정찾기 - 답글쓰기

김길화



더보기



다. 연결된 밴드



- 함께 쓰는 생활일기
바로가기
흐르는 강물처럼 페이지를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공유하기
layer focus check first element
3. 게시글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6월 6일 오전 6:25:105 읽음

【2019년 7월 10일 자로 올린 포스팅입니다.
다시읽기차원에서 소개합니다.】

<단상>

고독은 영웅도 올린다

시골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이란 한 마디로 수업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엔 알퐁스 도데의 별이란 단원이 나오면
우리 모두는 <벼영신 새끼!>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름다운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가 아무도 없는 밤중에
양층스럽게 주인공의 어깨를 기대어 왔는데도
소위 <건드리지>않는 대목이 아이들에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고역 중의 고역일 것이었다.

그래도 50 대 중반의 뚱뚱한 *국어 강사는 <혼잣말 수업>을
끈기 있게 이어가고 있었다.

(*60 년대 당시 시골고등학교엔 정식으로 부임하려는 교사가 없어
국어, 영어, 수학 교사는 임시 강사들이 들락거렸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전국에 방을 내렸다.
누구든지 시를 지어 나를 울리는 자는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나 교실은 시장통을 방불케 하였다.
장난하는 아이, 얹드려 자는 아이,
시비가 붙어 싸우기 일보직전인 아이.....
그렇거나 말거나 전직이 아나운서였다는 국어강사는
줄기차게 <혼잣말 수업>을 이어나갔다.
나도 수업을 해보았지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는 여건은
수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강사는 굴하지 않고 꾸역꾸역 수업을 밀고 나갔다.

온갖 과객이 몰려들어 시를 지어 바쳤지만
진시황을 울리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과객이 찾아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는데 첫 구절이 이러하였다.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 하니
세상사 여부운(世上事 如浮雲) 이라.



나 혼자 다른 참고서를 들여다보던 나도 이 구절은 귀에 익어
그렇거니 하고 국어 강사를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떠들든가 말든가 여전히 <혼잣말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고등학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나
 뜬구름과 같은 허망한 인생임을 알기에는 시기상조였건만
국어강사는 의연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나를 바짝 긴장하게 하였다.

백골장 인산후(白骨葬 人散後)에.....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내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다 헤어지기 마련이다.
천하의 진시황이라도 죽어 장사를 지낸다면 신하든 백성이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그 구절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왔는지 모른다.
모골이 송연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물론 이 구절은 성분묘 객산거(成墳墓 客散去)와 같은 표현으로도
전해지지만 그 내용의 쓸쓸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어서 진시황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구절이 이어진다.

산적적 월황혼(山寂寂 月黃昏)이라.....

산은 옛날과 다름없이 적적하고 달은 황혼에 높이 떴더라.....



진시황이 울기 전에 내가 먼저 뒤통수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인생의 허무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또한 한시(漢詩)의 위력에 풍덩 빠지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천하를 호령하는 진시황이라도 죽어 땅에 묻히면
산은 옛날과 다름없이 적적하고 달은 황혼에 높이 뜨는 현실.....
이 대자연 앞에 우리네 인생의 온갖 욕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윽고 눈물을 흘린 진시황이 과객을 불러 소원을 물으니
술이나 한 잔 주시오 하고 청하여 마시고는

표표히 사라졌더라는 것이 국어강사의 <흔잳말 수업>이었다.

그날 꺽꺽하게 <흔잳말 수업>을 하엿던 국어강사님,
5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업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여기에 남아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
